

- 주요 뉴스: 영국, 정부 감세안 발표 후 금융시장 불안 심화(파운드화 37년래 최저)
 - 미 연준 파월 의장, 미국 경제의 뉴 노멀 진입 가능성 시사
 - 유럽중앙은행(ECB)의 때파적 인사, 더 큰 폭의 금리인상 주장
 - 아시아 개발은행(ADB), 자본통제 및 환시 개입을 통한 고환율 대응 지지
 - 국제금융시장: 고강도 통화긴축 및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로 위험자산 선호 약화
미국 주가 하락[-1.7%], 달러화 강세[+1.7%], 장기금리 하락[-3bp]
 - 주가: 미국 S&P500지수는 연준 고강도 긴축 등에 우려. 다우지수는 30,000pt 하회
 유로 Stoxx600지수는 영국 감세안 발표에 따른 불안 여파로 2.3% 하락
 - 환율: 달러화지수는 파운드화 급락 등을 반영하며 113대 진입
 유로화 가치는 1.5%, 파운드화 가치는 3.6%, 엔화 가치는 0.6% 하락
 - 금리: 미국 10년물은 장중 3.82%까지 상승 후 반락. 2년물은 4.20%로 추가 상승
 독일 10년물은 영국 10년물 폭등(+33bp)의 영향으로 5bp 상승
- ※ 원/달러 1M NDF환율(1419.9원, +11.5원) 0.8% 상승, 한국 CDS 5bp 상승

		9/23일	9/22일	전일대비			9/23일	9/22일	전일대비
주가	미국	3,693.2	3,758.0	-1.72%	국채 금리 10y	미국	3.68%	3.71%	-3bp
	유럽	390.40	399.76	-2.34%		독일	2.02%	1.97%	5bp
	중국	3,088.4	3,108.9	-0.66%	CDS 5y	한국	50bp	45bp	5bp
	일본	휴장	27,154	-		중국	104bp	96bp	8bp
	한국	2,290.0	2,332.3	-1.81%	위험 지표	EMBI+	447bp	432bp	15bp
환율	달러지수	113.19	111.35	1.65%		VIX	29.92	27.35	9.40%
	유로화	0.9687	0.9836	-1.51%		WTI유	78.74	83.49	-5.69%
	엔화	143.31	142.39	-0.65%	원자재	구리	337.15	349.85	-3.63%
	위안화	7.1284	7.0781	-0.71%		금	1,643.9	1,671.2	-1.63%
	원화	1,409.3	1,409.7	0.03%					

주: 주가는 미국 S&P 500, 유럽 Stoxx 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금일의 포커스

■ 영국, 정부 감세안 발표 후 금융시장 불안 심화

- 트러스 총리, 2.5% 성장을 달성을 목표로 △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에너지 비용 대처 △기업 지원 △가계 지원에 중점을 둔 새 성장계획을 발표. 법인세 인상 취소(25%), 소득세 기본세율 조기 인하(→19%), 부동산 인지세 인하 등이 포함
- 50년래 최대 감세 조치로 평가(IFS영국 씹크탱크)되는 등 계획안 발표 후 인플레이션 및 정부부채 부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영국 국채금리가 급등(10년물, 전일대비 최대 +0.34%p)하고 파운드화 가치가 37년래 최저치를 경신하는 등 금융불안 심화

글로벌 동향 및 이슈

■ 미 연준 파월 의장, 미국 경제의 뉴 노멀 진입 가능성 시사

- 미국 경제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야기한 혼란을 겪은 후 뉴 노멀에 진입하고 있을 수 있으며, 정책입안자로서 경제가 어려운 시기를 헤쳐 나가도록 돕기 위해 정책 수단을 사용하는 데 전념하는 등 이례적인 혼란에 계속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

■ 유럽중앙은행(ECB)의 매파적 인사, 더 큰 폭의 금리인상 주장

- 나겔 분데스뱅크 총재, 인플레이션 대응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ECB는 경제 성장에 타격을 주더라도 정책금리를 추가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보유자산 축소에도 지지 의견 표명. 또한, 중립금리 수준을 논의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언급

■ 스위스 중앙은행(SNB), 스위스 경기침체 가능성 일축

- 요르단 총재, 현재로서는 '22년 스위스 GDP가 2% 성장하는 등 침체에 빠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. 다만, 내년 에너지 가격 재급등, 코로나19 재악화 등으로 세계경제가 하방압력을 받을 경우에는 침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언급

■ 아시아 개발은행(ADB), 자본통제 및 환시 개입을 통한 고환율 대응 지지

- 아사카와 총재, 미 연준의 고강도 통화긴축 환경 속에서 아시아 신흥국들은 큰 폭의 통화 약세를 피하기 위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, 強달러 리스크가 부채 위기를 자극할 경우에는 자본통제 및 외환시장 개입도 동원될 수 있다고 발언

■ 중국인민은행(PBoC), 위안화 국제화 추진 지속 시사

- '22년 위안화 국제화 보고서를 통해, 역내·역외 위안화 시장 간 선순환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위안화 국제화를 꾸준히 추진하고, 해외 투자자들의 위안화 자산 보유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금융시장 유동성을 제고할 계획임을 발표

■ 폴란드 중앙은행(NBP), 정책금리 인상 가속화 가능성 대두

- 티로비치 정책위원, 현재와 같이 매 정책회의에서 정책금리를 0.25%p씩만 올리는 것은 합리적인 전략이 아닐 수 있다면서, 최근 조기 큰 폭 인상의 효과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금리를 2~4%p 더 올리는 급진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한 적이 있다고 언급

■ 헝가리 재무부, 헝가리 경제에 대한 부정적 전망 제시

- 바르가 재무장관, 헝가리 경제는 '22년 4분기부터 '23년 3분기까지 계속 수축될 것으로 예상되는 어려운 시기를 향하고 있으며 '24년에야 과거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. 아울러 기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은 수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

■ 말레이시아 중앙은행(BNM), 링깃화 약세 불구 외환 규제강화 가능성 일축

- 유누스 중앙은행 총재, 링깃화 가치*를 지키기 위해 자본통제 및 페그제 재도입에 의존하기보다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△물가 안정 환경 속 지속적인 경제성장 △구조 개혁을 통한 경제 펀더멘털 강화에 둘 것이라고 언급 * 미 달러화 대비 24년래 최저

주요 경제지표

■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(9/23 현지시각 기준)

- 미국 9월 제조업 PMI: 51.8, 8월(51.5), 예상치(51.0)
- 유로존 9월 제조업 PMI: 48.5, 8월(49.6), 예상치(48.8)
- 영국 9월 제조업 PMI: 48.5, 8월(47.3), 예상치(47.5)

■ 주요 경제 이벤트(9/26 현지시각 기준)

- 미국 9월 달러스 연은의 제조업 전망 서베이, 일본 9월 제조업 PMI, 독일 9월 IFO 기업환경지수, 영국 9월 라이트무브 주택가격 지수 등 경제지표 발표
- 콜린스 보스턴 연은 총재,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, 메스터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, 라가르드 ECB 총재, 나겔·파네타 ECB 정책위원들의 통화정책 관련 발언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211, E-mail swlee@kcif.or.kr